

# KOCHAM

##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  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11월 7일(금)

#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10월 중 비농업취업자수 21.4만명 증가
- 2) 달러, 고용지표 호조에 강세

#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일본, 추가 양적완화로 은행업계 수익성 저하 우려
- 2) 무디스, 남아공 신용등급 한단계 강등

#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MS, 애플 기기용 오피스 무료화

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### 1) 10월 중 비농업취업자수 21.4만명 증가

- 지난 7일 미 노동부는 10월 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가 21만 4,000명 증가했다고 발표
  - 이는 9달 연속 20만명 이상의 취업자수가 새로 추가된 것이며 1994년 이래 최장 기록
-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미 경제는 매월 평균 22만 9,000명의 비농업부문 인력이 증가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- 또한, 9월 중 비농업부문 신규취업자수는 24만 8,000명에서 25만 6,000명으로, 8월 중 기록 역시 18만 명에서 20만 3,000명으로 조정

### 2) 달러, 고용지표 호조에 강세

-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달러화가 고용지표 호조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(ECB) 총재의 경기 부양 발언 등으로 인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
- 전문가들은 10월 중 고용동향과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호조를 보이고 뉴욕증시가 상승한 것을 달러 강세의 원인으로 분석
  - 지난 6일 뉴욕외환시장에서 엔/달러 환율은 115.25엔에 거래돼 전 거래일의 114.76엔보다 상승(엔화가치 하락), 이는 2007년 11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
  - 유로화는 1.2378달러에 거래돼 전 거래일의 1.2484달러대비 하락, 이는 2012년 8월 이래 2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
- 한편,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달러 인덱스는 88.225로 전일대비 0.75% 상승

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### 1) 일본, 추가 양적완화로 은행업계 수익성 저하 우려

- 지난 6일 WSJ은 일본은행의 ‘바주카포’ (추가 양적 완화)가 대출 확대에 도움 보다는 은행업계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
  - 하루히코 일본은행(BOJ) 총재는 추가 양적완화 결정이 은행권의 기업·개인 대출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
  - 하지만, 전문가들 사이에선 총재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
- 또한,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충분한 현금을 보유중이기 때문에 BOJ가 기업 대출 수요를 촉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
- 게다가 시중 은행들이 대출 금리 결정기준으로 삼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양적완화 결정 이후 하락, 은행권이 대출을 증가시켜도 수익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
- 한편, 현재 미쓰비시 UFJ, 미즈호, 스미토모 미쓰이 등 일본의 3대 은행은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역대 최저 수준인 1.25%의 금리를 적용 중인 것으로 알려짐

## 2) 무디스, 남아공 신용등급 한단계 강등

- 지난 6일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'Baa1'에서 'Baa2'로 한 단계 강등한다고 발표
  - 무디스는 금리 인상과 지속적인 에너지 부족 등 구조적 취약점 때문에 남아공의 중기 성장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지적
- 한편, 무디스는 금년 남아공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.4%로 하향 조정했으며 2015년 성장률 전망치는 2.5%로 제시한 바 있음

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### 1) MS, 애플 기기용 오피스 무료화

- 지난 6일 블룸버그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(MS)가 애플 아이패드와 아이폰에 사용되는 '오피스' 소프트웨어를 무료화,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MS 워드, 엑셀, 파워포인트를 무료 앱으로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발표
  - MS는 지난 2월 아이패드용 오피스를 선보였지만 '오피스 365' 유료 계정을 보유한 고객들만 사용 가능, 무료 고객들은 문서 읽기만 가능 했었던 것으로 알려짐
- 또한, MS는 안드로이드용 MS 워드, 엑셀, 파워포인트 앱의 시험판도 출시, 정식 버전은 내년 초에 출시할 예정
- 한편, MS는 윈도우 오피스를 터치스크린에 완전히 최적화해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윈도우 10과 함께 발매할 계획